

퇴직연금 도입 20년 만에 처음,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다

-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출범 -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 작업을 위해 노사정이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는 2001년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해 노사정이 지혜를 모았던 이후로 처음이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0. 28.(화)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를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도입률 제고, 수익률 개선 등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다양한 개선 과제 중 국정과제, 사회적 관심도, 제도적 중요성을 고려해 이번 TF에서는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핵심 의제로 우선 논의한다. TF는 연내 합의문 또는 권고문 도출을 목표로 운영된다.

TF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노사, 청년, 정부, 공익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TF에는 ‘가장 오래’ 적립금을 납부하고 ‘가장 길게’ 제도의 영향을 받게 될 청년세대가 참여하여 미래세대의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위원장은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았다. 장지연 위원장은 2018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국민연금개혁 및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국가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종합적 관점에서 퇴직연금 제도를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익위원으로는 노동·재무·사회복지·법학·기금운용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인사들이 참여했다.

< 노사정 TF 구성 >

위원장(1)	장지연 (現노동연구원 선임, 前경사노위 연금특위 위원장)
노동계(2)	한국노동조합총연맹(류제강 정책2본부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홍석환 정책국장)
경영계(2)	한국경영자총협회(임영태 본부장), 중소기업중앙회(이명로 본부장)
청년(2)	청년유니온(김설 위원장),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문유진 대표)
정부(4)	고용노동부(최관병), 기획재정부(주환욱), 금융위원회(박민우), 금융감독원(서재완) <국장급>
공익(7)	권혁(고려대), 길현중(노동연구원), 김성희(L-ESG평가연구원), 김재현(상명대), 박성태(김앤장), 성주호(경희대), 정창률(단국대)

TF는 격주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 전문가 발제와 자유토론을 통해 주요 쟁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세부적으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사업장 규모별 단계적 적용 시점, 영세·중소기업 부담 완화 방안, 의무화에 따른 이행력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한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기금 운용주체(공공, 민간 등), 책임 체계(이해상충 방지 조치, 관리·감독 체계 등) 등 제도 설계를 위한 핵심 쟁점을 논의한다.

권창준 차관은 “이번 TF는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는 자리로서 의미가 크다”라고 강조하며, “영세·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자칫 현재의 제도로는 노동시장의 격차가 노후 소득의 격차로 확대될 우려가 크다”라며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제도는 이러한 격차를 완화하고 일하는 사람 모두를 위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만드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오늘 출범한 노사정 TF가 그 변화의 첫걸음이 되어주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책임자	과 장	이준호 (044-202-7554)
		담당자	사무관	남덕현 (044-202-7657)



붙임 1**퇴직연금 기능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1차 회의 개요**

□ 일시

- '25. 10. 28.(화) 10:00~11:30

□ 장소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5층 컨벤션룸

□ 참석자

- (노사정 TF) TF 위원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차관, 퇴직연금복지과장

□ 진행 순서

* 모두발언까지 공개

시 간	내 용	비 고
10:00~10:05('05)	○ 모두 발언	위원장, 차관
10:05~10:25('20)	○ 발제 - 노사정 TF 운영 계획 등	고용노동부
10:25~11:25('60)	○ 자유토론	참석자 전원
11:25~11:30('05)	○ 마무리 발언	위원장, 차관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차관 권창준입니다.

오늘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를 발족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퇴직연금의 제도적 발전을 위해 함께 해주신 노동계, 경영계, 청년, 공익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위원장을 맡아 주신 장지연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지연 박사님께서서는 오랜 기간 노동, 사회 정책을 연구해오셨으며, 특히 과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국가 노후소득보장체계라는 종합적 관점에서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힘써주시리라 기대합니다.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제도는 꾸준히 성장하여, 지난해 말 적립금이 431조 원에 달하고, 전국 43만 개 사업장, 675만 명의 근로자가 가입하는 등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도입률은 23%에 불과하고
 체불액 중 상당 부분이 퇴직금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여전히합니다.
 수익률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양적 성장을 넘어 퇴직연금이 노후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 도약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오늘 출범하는 노사정 TF는 퇴직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최초의 사회적 대화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큼니다.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논의했었던 2001년 이후 처음으로, 노동계·경영계·청년세대·전문가·정부가 다시 한자리에 모여 퇴직연금의 미래를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TF는 국정과제뿐 아니라 사회적 관심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제도'를 핵심과제로 우선 논의할 계획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낮은 퇴직연금 도입률을 고려할 때 현 제도로는 노동시장의 격차가 노후소득의 격차로 확대될 우려가 큼니다.

도입 의무화를 통한 제도적 보편성 확보, 기금형 도입을 통한 수익률 제고는 우리 퇴직연금 제도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포용적 노후소득보장체제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출범한 노사정 TF가 그 변화의 첫걸음이 되어주길 기대합니다. 정부도 TF에서 도출되는 의견을 존중하고, 논의 결과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는 이번 대화의 과정 자체가 퇴직연금의 신뢰를 회복하고, 제도의 내실을 다지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의 깊은 통찰과 고견이 퇴직연금 제도의 새로운 20년을 여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